

화순힐링푸드·강진청자축제 성공 개최 박차

축제추진위 첫 회의 갖고 준비 본격화

일회성 프로그램 지향 가족참여 확대

화순군과 강진군이 전남 중부권의 대표 축제인 강진청자축제,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문화예술단체장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축제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획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 6개 분야 78개 단위 행사로 구성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관광객 호응도가 낮거나 일회성 프로그램을 대폭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축제 기간이 무더운 여름인 점을 감안해 물 관련 시설, 그늘터널, 이

클루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보완할 예정이다.

강진 명인·명품·명소관도 운영하고 강진 음악동아리 등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기회도 늘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진군 관광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윤부현씨를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국장을 새로 선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전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제4회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9일 동안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화순군도 같은 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3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에 위촉장을 주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축제추진위원장에 (사)한국사직작가협회 화순군지부장인 정병수씨가,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윤평순씨가 각각 선임됐다.

이날 25명의 추진위원들은 발효 음식과의 연계성, 힐링푸드 개발센터

건설 및 교육, 식문화 해설사 도입 등을 제시하고 체험·홍보·관광객 수요 예측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2013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은 오는 5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화순하니움문화소프츠센터에서 개최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kwangju.co.kr



“가치관·꿈 큰 소리로 알리세요”

담양중, 입학식 대신 ‘진로비전 선포식’ 화제

담양중학교가 기존 입학식을 신입생 모두가 재능과 감성을 고려해 수립한 진로비전(vision)을 선포하고 학부모 앞에서 선포하도록 하는 ‘비전선포식’(사전)으로 대체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 측은 4·5일 이틀간 전체 신입생 대상 진로비전캠프를 실시, 2일째인 5일 오후 자신의 가치관이나 꿈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알리도록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선배들로 구성된 드림난타반의 웅장한 두드림, 힙합댄스, 대나무악기 합주, 통기타와 그룹사운드 협연 등도 이어졌다.

김성희 교장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매년 진로비전 선포식으로 입학식을 대체함으로써 중학생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이 높이 날아 멀리 볼 수 있는 진로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이번 선포식으로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선배들로 구성된 드림난타반의 웅장한 두드림, 힙합댄스, 대나무악기 합주, 통기타와 그룹사운드 협연 등도 이어졌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장흥 물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최고의 여름축제인 장흥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지난 5일 제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축제콘텐츠대상은 전국 지역 축제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축제를 콘텐츠별로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제정된 상이다.

올해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7일간 장흥읍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열린다.

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3 문화관광유망축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축제를 앞두고 이달 지상 4층 규모의 ‘물과학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군민 불편 해소 ‘현장탐사 통보제’ 실시

화순군, 이달부터

화순군은 6일 “이달부터 군민 생활의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미리 찾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현장탐사 통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추진했던 견문보고제에 군민생활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했지만 절차 및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현장탐사 통보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장탐사 통보제는 공무원 및 군민 모두가 불법주차장, 가로등고장, 무단쓰레기 방치, 각종 위험시설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현장탐사통보마당’에 등록하면 해당부서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무원 및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강진 음식문화대학 국비 지원 받아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음식업주

43명의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추후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광주여대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60시간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강진군 음식문화대학은 관내 음식 문화 수준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kwangju.co.kr



반남면 금동관 상징물 제막식

6일 영산강 고대사의 실체를 입증하는 다양한 유적이 밀집된 나주시 반남면에 상징조형물이 들어섰다. 이 조형물은 반남의 대표 유물인 금동관과 용관을 형상화했다. 한편 반남면에 건립중인 국립나주박물관이 오는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22일 개관할 예정이다.

(나주시 제공)

전북

남원, 레미콘 업체 줄도산 우려

건설 불경기 속 외지업체 덤핑 공세 불구 市 수수방관

남원지역 건설업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체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지업체의 덤핑 공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그나마 발주되고 있는 지역물량마저 모두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남원지역 레미콘 업체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 폭등, 건설경기 부진, 모래·자갈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3중고에 외지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남원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남원시 월라동에 들어설 지하 1층 지상 15층 6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432세대)에 들어갈 레미콘 약 5만 루베(세제곱미터) 납품을 놓고 남원지역 레미콘 업체와 타 지역 업체가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기초금액의 72%를 써낸 타 지역 업체가 78%를 제시한 지역업체를 누르고 낙찰 받았다.

이번 납품은 최근 남원지역에서 발주된 최대 규모여서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됐으나 결국 저가 덤핑공세에 타 지역 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올해 몇

몇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는 등 레미콘 업계의 추락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남원은 6개의 레미콘 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공부문 건설 물량이 줄고 외지업체의 공세까지 겹치면서 수익을 포기하며 수주에 나서고 있다.

외지업체들의 원거리 저가 공세로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낮추고 있으나 재고부담 및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곧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이동도서관 운영

농촌 학교·아파트 대상

정읍시립도서관이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서며 생활 속 문화·교육의 산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도서관은 올해도 이달 둘째 주부터 연말까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병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동도서관은 접근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 학교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달 1회 50권의 도서를 순회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읍시립공공도서관 3개관(정읍, 신태인, 기적의도서관)과 7개의 작은도서관 간 이용자 상호대차 서비스도 시행한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단신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 ‘차없는 거리’ 지정

전주 한옥마을을 가로지르는 태조로의 휴일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전주시는 관광객들이 고즈넉한 한옥마을 정취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통성당~오목대 일구(530m) 연달까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병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동도서관은 접근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 학교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달 1회 50권의 도서를 순회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읍시립공공도서관 3개관(정읍, 신태인, 기적의도서관)과 7개의 작은도서관 간 이용자 상호대차 서비스도 시행한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정읍시보건소 ‘건강 운동교실’ 호평

정읍시보건소가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낙상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동교실’이 호평을 받고 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동교실’은 장년기 이상 성인들이 탄력밴드, 볼, 덤벨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 유연성을 기르고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실천 프로그램이다.

보건소는 교육에 앞서 기초검진 및 체력측정, 사전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은 화당 8주씩 운영되며, 연간 3회 운영된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남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남원시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응모해 ‘지역거점 육성 기관’으로 선정돼 3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에는 거점기관 19곳, 일반기관 242곳 등이 선정됐으며, 전북

도 내에서는 남원시와 전주주부평생학교가 ‘지역거점 육성기관’이 됐다.

시는 평생학습센터, 송동면, 주천면 등에서 초등 1학년부터 중입 검정고시까지 수준별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 농업인 사업자금 30억 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 소득사업자금 30억원을 이달 안에 용자 지원한다.

군은 6일 “농업인들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 조기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

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융자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07개 농가에 26억원을 소득사업 자금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신뢰 바탕 완주-전주 통합 실현”

김완주지사·송하진시장·임정엽군수 회견

오는 6일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완주군에서 찬·반 갈등이 고조되자 김완주 전북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 시·군이 약속한 상생발전사업과 협력사업의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이들 단체장은 이날 도청 2층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나란히 참석해 “완주군민과 전주 시민께서 통합의 진정성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상생발전사업 중 통합 이전일지라도 이행 가능한 사업은 즉각 실천하고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 조례를 제정하며 이행을 감독할 위원회를 만드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과 임 군수는 “오는 5월부터 전주시와 완주군 전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을 1100원으로 전면 단일화하고 전주시와 완주군 전 지역에서 무료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시장은 통합 의사 확인 이전에 전주시가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약속하는 조례를 제정해 신뢰를 쌓겠다고 다짐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호평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을 6일 쟁치면 시산마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농기계 수리점과 멀리 떨어진 오지마을 등 70개 마을이 사업 대상이며, 2만원 이하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고쳐준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